

## [지방자치만족대상] 여의도 '국제금융 허브' 본격화...경제·문화·관광 복합도시로

입력시각 : 2009-09-07 16:16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를 '한강르네상스'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경제·문화·관광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5년간 150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중심업무지구,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주거지원지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는 지난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구결정·고시 등 '금융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 높이,용도,용적률 등을 설정해 개발토록 하는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조감도.

앞서 지난 1 월에는 여의도 지역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선정됐고, 4 월에는 여의도 22 일대 39 만 5214 m<sup>2</sup>가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영등포구가 '여의도 국제금융개발진흥지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발의 불씨를 댕기고 있는 것.

특히 여의도 통일주차장 부지를 개발해 2013년 완공되는 오피스빌딩 '파크원(Parc1)'은 63 빌딩의 뒤를 이어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원은 72 층과 55 층 높이 오피스빌딩 2 개 동과 지상 6 층 높이의 고품격 쇼핑몰 등으로 구성되는 총 연면적 4 만 6465 m<sup>2</sup> 규모의 대형 빌딩.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건축가인 리처드 로저스 경과 그의 파트너들로 이뤄진 건축디자인회사 '로저스 스텠크 하버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았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고 있다. 파크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친환경건물 국제인증인 '리드(LEED)' 골드등급 예비인증까지 획득했다.

같은 해 완공 예정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도 주목된다. 옛 중소기업전시장이 있던 부지에 55 층 · 32 층 · 29 층짜리 오피스 건물 3 개동과 30 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지하 3 개층에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자리잡는다. 파크원은 지하철 5 호선 여의나루역과 이어지고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 호선과 9 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연결된다.

특히 두 곳이 하나로 연결되면 여의나루역에서 파크원 지하상가, 서울국제금융센터 지하상가를 걸쳐 여의도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창출된다.

영등포구는 금융개발진흥지구 등 여의도 개발에 따른 글로벌 다국적 금융산업의 유치로 80 여만명의 고용과 85 조 5000 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주요 증권사들이 몰려 있어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하기가 손쉽다는 분석이다. 인근 아파트가 낡아 외국인이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울시는 이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mailto:van7691@hankyung.com)





서울 여의도 파크빌딩 조감도

### 여의도 '국제금융 허브' 본격화 경제·문화·관광 복합도시로

#### 도시개발부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를 '한강 르네상스'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경제·문화·관광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5년간 150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중심업무지구,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주거지원지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는 지난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결정·고시 등 '금융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 높이, 용도, 용적률 등을 설정해 개발토록 하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여의도 지역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선정됐고, 4월에는 여의도 22 일대 39만5214㎡가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영등포구가 '여의도 국제금융개발진흥지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발의 불씨를 댕기고 있는 것.

특히 여의도 통일주차장 부지를 개발해 2013년 완공되는 오피스빌딩 '파크원(Park1)'은 63빌딩의 뒤를 이어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원은 72층과 55층 높이 오피스빌딩 2개 동과 지상 6층 높이의 고품격 쇼핑몰 등으로 구성되는 총 연면적 4만6465㎡ 규모의 대형 빌딩.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건축가인 리처드 로저스 경과 그의 파트너들로 이뤄진 건

축디자인회사 '로저스 스텀크 하버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았으며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시공하고 있다. 파크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친환경건물 국제인증인 '리드(LEED)' 골드등급 예비인증까지 획득했다.

같은 해 완공 예정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도 주목된다. 옛 중소기업전시장 이 있던 부지에 55층·32층·29층짜리 오피스 건물 3개동과 30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지하 3개층에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자리잡는다. 파크원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이어지고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연결된다.

특히 두곳이 하나로 연결되면 여의나루역에서 파크원 지하상가, 서울국제금융센터 지하상가를 걸쳐 여의도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창출된다.

영등포구는 금융개발진흥지구 등 여의도 개발에 따른 글로벌 다국적 금융산업의 유치로 80여만명의 고용과 85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주요 증권사들이 몰려 있어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하기가 손쉽다는 분석이다. 인근 아파트가 낡아 외국인 인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울시는 이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녹지 조성해 휴식·여가에도 힘쓸것"

#### ●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여의도를 아시아 3대 국제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지방자치만족대상 수상을 통해 영등포 지역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여의도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금융 중심지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지역 397만㎡ 일대를 국제적 수준의 오피스단지, 품격 있는 글로벌주거단지, 녹지 속에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영국의 '시티오브 런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복안이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여의도에는 한국에 있는 국·내외 증권회사 본점 62개 가운데 32개, 자산운용사 본점 59개 가운데 40개, 선물회사 본점 12개 가운데 9개가 몰려 있다.

김 구청장은 또 "기존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변 한강시민공원을 문화·관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고 셋강 생태공원과 사업을 통해 풍부한 녹지 속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관심이 여의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김 구청장은 "여의도 외의 관내 지역도 함께 조화를 이뤄 '균형 발전의 선진 영등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는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이 쇠퇴하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보기 드문 약사 출신 구청장이다. 영등포구 약사회장, 서울약사진흥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고 구의회 의원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의회의 회장을 지냈다.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구청장에 오른 뒤 2006년 재선에 5년째 영등포 구정을 책임지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3.3km<sup>2</sup> 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서남권 중심도시로

#### 첨단산업·축산물부문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시장 강광)는 자연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서남권 중심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 정읍분소 등 3대 국제연구기관 인근에 3.3km<sup>2</sup>(100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광 정읍시장

단지의 46%는 산업용지로 분양되고, 나머지에는 연구원·기업체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와 개인주택 등 주거단지와 공공시설·복지공간·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KTX가 다니는 정읍역도 인근에 있다. 국도1호선 대체도로와 708번 지방도로 등도 개설됐거나 확장되고 있다.

정읍시는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맺고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우선 1단계 0.9km<sup>2</sup>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방사선융합기술(RFT)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 및 연구소, 업체를 집중화하는 '방사선 융합기술밸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0년 1단계 완공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모습

이미 종근당, 아가방 등 기업과 입주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국내 굴지의 50여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정읍시의 설명이다. 또 2단계로 2.4km<sup>2</sup>를 추가 조성해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2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목표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인근 3대 국제연구기관과 함께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국제연구기관은 우주식품 4종(김치, 라면, 수정과, 생식바)과 우주선 탑재 돌연변이 화훼류(난) 및 무궁화신제품,

비신종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정읍시는 이들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물들을 기업체에 이전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실용화센터를 건축해 기술이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양대 사업으로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내장산리조트사업이 꼽힌다. 사업비 525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내장저수지 아래 52만㎡에 조성되는 내장산관광테마파크에는 문화광장과 워터파크, 박물관, 농경문화체

험관 등 공공시설과 유스호스텔, 먹거리센터, 화훼테마파크 등 민자시설이 들어선다. 내장산리조트는 2010년까지 총 25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아쿠아시설뿐 아니라 관광호텔, 빌라, 콘도,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게 된다.

정읍시는 또 서남권 경마공원 유치,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고속철도 정읍역세권 개발,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미래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 등 6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새로운 신개념 "1박 2일" 홍보영상으로 전국을 확 띄운다!

신개념  
1박 2일

※신개념 1박 2일 홍보영상이란?

- 홍보영상 제작 시 스타마케팅 및 지역스타 발굴 등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패턴을 통해 지역의 특징을 부각
- 기존 홍보영상을 뒷받침해주는 부록식효과로 케이블TV나 인터넷TV 또는 UCC 사이트에 콘텐츠 영상 배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으로도 제작하여 전 세계로 영상을 송출

문의 | 허베스트브랜딩연구소 02-780-0307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조감도

## 여의도 '국제금융 허브' 본격화 경제·문화·관광 복합도시로

### 도시개발부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를 '한강 르네상스'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경제·문화·관광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5년간 150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중심업무지구,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주거지원지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는 지난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결정·고시 등 '금융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 높이, 용도, 용적률 등을 설정해 개발토록 하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여의도 지역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선정됐고, 4월에는 여의도 22일대 39만5214㎡가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영등포구가 '여의도 국제금융개발진흥지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발의 불씨를 댕기고 있는 것.

특히 여의도 통일주차장 부지를 개발해 2013년 완공되는 오피스빌딩 '파크원(Parc1)'은 63빌딩의 뒤를 이어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원은 72층과 55층높이 오피스빌딩 2개 동과 지상 6층 높이의 고품격 쇼핑몰 등으로 구성되는 총 연면적 4만6465㎡ 규모의 대형 빌딩.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건축가인 리처드 로저스 경과 그의 파트너들로 이뤄진 건

축디자인회사 '로저스 스텠크 하버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았으며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시공하고 있다. 파크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친환경건물 국제인증인 '리드(LEED)' 골드등급 예비인증까지 획득했다.

같은 해 완공 예정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도 주목된다. 옛 중소기업전시장이 있던 부지에 55층·32층·29층짜리 오피스 건물 3개동과 30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지하 3개층에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자리잡는다. 파크원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이어지고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연결된다.

특히 두곳이 하나로 연결되면 여의나루역에서 파크원 지하상가, 서울국제금융센터 지하상가를 걸쳐 여의도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창출된다.

영등포구는 금융개발진흥지구 등 여의도 개발에 따른 글로벌 다국적 금융산업의 유치로 80여만명의 고용과 85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주요 증권사들이 몰려 있어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하기가 손쉽다는 분석이다. 인근 아파트가 낡아 외국인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울시는 이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